# 문제 개선 목소리 높이고 취약계층 자비 실천

## 2025 사회·복지·NGO 결산

**노동자 위한 제도 개선 행동나서**
**'나는 절로'로 청년 만남 장려도**
**산불 · 지진 국내외 재난 구호 활동**
**종교편향 비판…시정 강력 요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 주최로 1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에서 진우 스님과 김민석 총리가 헌향하고 있다.

2025년 불교계는 사회문제와 취약계층에 몸과 마음을 함께하는 행보를 이어 갔다. 또 청년들의 삶에 희망을 안기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 국내외 구호현장에서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쳤다. 매년 발생하는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 갔다.

올해 불교계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멈추지 않고 행동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 49재를 시작으로 SPC, MBC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탄하는 연대활동을 적극 펼쳤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이어지자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기원하는 염원이 모이자 조계종은 1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에는 산재 노동자 140여 명의 위패가 모셔졌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30여 유가족이 동참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로 청년들이 불교적 가치와 만남의 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나는 절로'는 회를 거듭할수록 식지 않는 열기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 9월 실시된 '신흥사' 편에서는 24명 선발에 2620명이 접수, 역대 최대 규모 참가 신청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결혼 1호 커플이 탄생하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진우 스님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한편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했다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불교계 NGO와 구호단체들은 산불과 지진 등 자연재해를 당한 국내외 구호현장에서 이재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바쁘게 움직였다.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과 가축,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은 불교계에 산불복구를 위한 마음이 모였다.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모연되 피해복구기금과 물품이 피해 사찰과 지역민에게 전달됐다. 사찰림 복원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대한 활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월 28일 미얀마에 강진이 발생하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더프라미스와 함께 4월 8일 지진피해 긴급구호 합동선발대를 구성, 현장을 찾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펼쳤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7월 말, 현지에 방문해 2500만원 상당 복구기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로터스월드도 6월, 미얀마 지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쌀과 식용유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주민을 격려했고 특별히 영아들을 위해 2억원 상당의 아동복을 지원하기도 했다. 로터스월드는 또 본지와 공동 캠페인을 통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된 미얀마 국민을 위한 정수시설 설치를 꾸준히 이어 가 최근 6기를 완공했다.

올해는 종교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였다. 가톨릭 국제 행사인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특별법이 발의되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와 중앙종회는 즉각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특별법은 표류 중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기독 편향 발언으로 불교계의 경고를 받고 불교계에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개신교 편향적 발언을 이어 가다 불교계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초청해 격려했다. 왼쪽부터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박경숙 아름다운동행 이사. **사진 제공=대통령실**

## 李, 나눔 확산 기여 '동행'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등 기부·나눔 문화 확산에 진력하고 있는 단체를 초청해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12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단체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구세군, 대한결핵협회, 바보의나눔, 유니세프 등 15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참석 단체에 성금을 전달하며 소외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단체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송정인 수습기자

## 태고종 상진 스님, 구세군에 성금 전달

**12월 13일 이웃돕기 성금 기부**
**주석 사찰 청련사서 기금 모연**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12월 13일 서울 구세군빌딩을 방문해 개신교 자선단체인 구세군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성금은 주석처인 양주 청련사에서 십시일반 모금돼 의미를 더 했다.

상진 스님은 "이웃 종교와 함께할 수 있어 남다른 기쁨을 갖게 된다"며 "종교의 경계마저 넘어서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한세종 구세군 한국군국 서기장관은 "불교와 기독교의 가치관이 하나 되는 활동이 많은 이들을 감화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 진우 스님, 김영배에 "시민 행복 정책" 조언

**12월 16일, 출마 선언 후 첫 일정**
**김 의원 "아우르는 행정 펼치겠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식 일정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서울시민을 아우르는 행정의 방향성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다.

진우 스님은 12월 16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김영배 의원을 예방을 받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

김영배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의 과정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내영 기자

## 신관 건립 · 갤러리 개관 20돌 동국대일산병원 발전 '잰걸음'

**12월 11일 신관 건립 선포**
**'땅 한 평 원력'운동 전개**
**12월 17일 '갤러리 숨' 개관**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12월 17일 1층 로비에서 '갤러리 숨(SUM)' 개관 초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일산불교병원(병원장 백용해)이 발전과 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12월 11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신관건립기금 모금 '땅 한 평의 원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모연은 5년간 6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원력을 모아 첫 참여에 나선 백용해 병원장은 "오늘의 '땅 한 평의 원력'은 우리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첫걸음이자 지역사회에 회향하려는 서원"이라고 말했다.

선포식 이후 교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돼 기금 약정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참여가 진행되면서 '땅 한 평의 원력' 모금 캠페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여정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귀한 정재로 신관을 건립하고, 이를 토대로 불교적 인술과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약사여래의 원력이 살아 숨 쉬는 치료 환경을 구축해 지역사회에 더욱 원만하게 회향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2월 17일 1층 로비에서는 환자의 마음 치유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갤러리 숨(SUM)' 개관 초대전 개막식이 열렸다.

예술을 통해 일상에 쉼을 불어넣는 열린 치유 공간을 지향하는 '갤러리 숨'은 생명의 순환과 불교적으로는 '한 호흡에 깨어 있음[息念, anapanasati]'을 의미한다. 갤러리의 지향점에 맞춰 개관전 작가로는 강민정 동국대 WISE 캠퍼스 디자인미술학과 조교수가 '순환'이라는 주제로 회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개관식에서 이해원 동국대 의료원장은 "이 공간이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힘을 채워 넣는 치유의 순환이 머무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갤러리 숨' 개관 초대전 '순환'은 내년 2월 27일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이후에도 회화, 카툰 등 다양한 전시를 환자와 보호자, 지역사회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